

동학혁명 정신, 전북교육 철학적 기반

인수위, 천호성 교육감에 정책 제안서 전달... 교육인권·전북유학·기초학력·AI 등 핵심과제 제안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위원장 반상진)가 21일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향후 4년간 전북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인수위원회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반상진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과 천호성 교육감이 참석해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인수위 활동 결과와 핵심 정책 방향, 향후 추진 과제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반상진 위원장은 “40일간 인수위원들이 교육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힘 없이 달려왔다”며 “이번 제안서는 완성본이 아닌 정책 청사진으로, 이달 말 백서를 제작해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21일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향후 4년간 전북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인수위원회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제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전북교육의 철학적 기반을 동학농민혁명 정신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인수위는 동학의 핵심 가치인 보국안민을 ‘회복안정교육’, 유무상자를 ‘상생협력교육’, 광재장생을 ‘포용성장교육’, 사인여원을 ‘미래도전교육’, 폐정개혁을 ‘혁신공정교육’으로 재해석해 전북교육의 5대 정책 방향을 정립했다.

반 위원장은 “전북만의 정신적 토대를 교육정책에 담아 차별화된 교육 비전을 설계했다”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전북교육의 가치체계로 연결한 것이 이번 정책 제안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공약 추진 과정에서 정책의 시급성과 교육 효과, 재정 건전성,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임기 초에는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과 기초학력 책임제, AI 교육플랫폼 기반 조성 등 기반 구축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교육복지 확대와 지역

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성과지표(KPI)를 활용한 성과관리체계(BSC)를 구축하고 학생 성장과 기초학력 향상, AI 활용 역량, 진로·진학 만족도 교육복지 제감도 등을 매년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 방안도 소개했다.

반 위원장은 “교원 법률 지원은 변호사 몇 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100명 이상 규모의 현장 대응 인력풀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로펌과 계약하는 방식까지 포함해 보다 체계적인 법률 지원체계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유학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교육의 농촌유학 개념을 넘어 전국은 물론 해외 학생까지 유치하는 ‘전북유학’으로 확대했다”며 “다만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가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계속사업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교육재정 감소를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반 위원장은 “교육은 경로 의존성이 강한 분야인 만큼 대부분의 기존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지방교육재정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일부 시설사업 등은 예산 효율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자체를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육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천호성 교육감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은 뒤 “전북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준비해 준 인수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다”며 “살아있는 힘을 기르는 전북교육”이라는 비전이 학생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하나하나를 꼼꼼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이달 말 정책 제안 내용을 보완한 백서를 발간한 뒤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 새 출발 설계

천호성 교육감, 주요 업무·현안 보고회 돌입

교육인권·기초학력 등 10대 과제 추진전략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요 업무와 현안을 점검하고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부서별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본청에서 주요 업무 및 현안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주요 현안과 중점 추진사업, 신규 정책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천호성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분청 업무보고로, 21일부터 28일까지 분청 19개 부서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첫날에는 전북교육인권센터와 미래교육과, 학교안전과 등이 업무를 보고했으며, 22일에는 교육과, 23일에는 정책기획과와 교육협력과, 28일에는 행정과 소관 부서가 차례로 보고를 이어

갔다.

보고회에는 부교육감과 국장 각 부서장 및 팀장 담당 직원들이 참석해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천 교육감이 질의와 토론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천 교육감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학생인권 강화와 지역 간 교육격차, 기초학력 저하 소규모 학교 증가 등 전북교육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 △전북유학 및 교육혁신신도시 지역 활성화 △학원의 감시위원회 설치 △기초학력 책임제 △독서 300 프로젝트 △성장지향 수업·평가 △AI 기반 교육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본청에서 주요 업무 및 현안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주요 현안과 중점 추진사업, 신규 정책 등을 점검했다.

랫폼 구축 △전북학생진로·진학교육원 설립 △함께하는 도전학교 △지역교육자치 역량 강화 등 전북교육 10대 핵심과제의 추진 전략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새로운 교육 비전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기초학력 책임제 현장 지원 강화 | 2026년 기초학력 전문교원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기초학력 책임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전문교원 역량 강화와 학교 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1일 전주 치명자(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6년 기초학력 전문교원 역량 강화 연수 9회차 과정을 개최하며, 지난 4월부터 이어온 전문가 과정 연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도내 기초학력 전문교원과 과학교사 60명이 참여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실천 중심의 지도 역량을 강화했다.

연수는 문해력과 수리력 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개념 분석을 비롯해 교구를 활용한 협력수업 지도 실제, 학생별 분리(Pullout) 지도 사례 공유 등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289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연수를 이수한 전문교원들은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협력수업과 개별 학습지도, 성장 이력 관리, 교원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기초학력 선도학교와 전문교원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북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전문교원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실과 학교, 지역이 연계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학습결손 예방과 기초학력 보

장에 나설 계획이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연수 과정을 이수한 전문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배움을 더욱 세심하게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의 출발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학력 책임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익산에서 열린 제19회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 환영회에서 천호성 교육감 및 참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하고 있다.

한·중 청소년, 스포츠로 우정 쌓기

제19회 스포츠 교류 익산서 개최... 4개 종목 국제교류전

전북교육청, 도내 학생선수 46명에 1600여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익산에서 열리는 ‘제19회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에 참가하는 도내 학생선수들을 지원하며 국제 스포츠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한·중 청소년 스포츠 교류는 한·중 청소년들이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 다양한 종목에서 친선경기와 합동훈련을 진행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다.

올해 교류전은 오는 25일까지 익산에서 배드민턴, 농구, 탁구, 바둑 등 4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전북지역 학교 소속 학생선수들이 전 종목에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국제 교류 경험 확대를 위해 학생선수 46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출전비를 지원하고, 대회 기간 식비와 간식비 등을 포함해 총 1,6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20일 열린 환영연에 참석해 전북 대표 선수들을 격려하고 양국 청소년 간 우호 증진을 당부했다.

천 교육감은 “이번 교류는 한·중 청소년들이 스포츠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중한 우정을 쌓는 뜻깊은 자리”라며 “승패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국제 교류를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 교류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갖추고 미래 체육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적·교육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청소년기 자녀 이해력 향상

전북교육청, 학부모 진로코칭 '마음톡톡'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부모의 진로코칭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21일 대안교육지원센터 3층 강당에서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마음톡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기질과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잠재력을 발견해 자녀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지도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청소년기의 특성과 부모의 역할을 비롯해 자녀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진로코칭 방법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고민을 한

게 나누는 ‘부모 공감 Talk Q&A’ 시간을 마련해 자녀와의 소통 진로지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과 조언도 제공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의 적성과 흥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부모가 자녀의 가능성을 믿고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미정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부모의 이해와 지지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진로 설계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자녀의 특성을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워크숍

전북교육청·순창군 일원서

전북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용일)는 지난 20~21일 이틀간 도교육청과 순창군 일원에서 도내 14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과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북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정책 공유와 지역연계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첫날은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미래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했다.

또한 순창발효관광재단과 업무협약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